

속 기 록

- ☐ 회 의 명 : 제406차 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2025. 9. 26(금) 14:02 ~ 17:00
-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40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극장운영팀 임나래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현재 위원 11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였고, 배은주 위원님께서도 오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훈경 위원님 그리고 김미라 위원님은 줌으로 접속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계획(안) 등 보고안건 4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아직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한 다음에요.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8월 29일에 개최한 제403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서 원안 의결되었고요. 그리고 9월 3일과 9월 16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상정된 의결안건 2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9월 10일에 우리가 2026년 정시공모(안)에 대해서 저는 전체회의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추가 의견을 제가 9월 11일자로 13쪽에 대해서 사무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신이 없는 관계로 제가 문예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비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간부님들이 들어와 있는, 27명 들어와 있는 카톡에 공유를 드렸고요. 현재 무용계의 현황과 여론을 몇 자 글로 적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면 의결로 2026년 정시공모(안)이 의결되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의견 13쪽에도 제출했다시피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무용계의 여론 수렴을 문예위 주최로 여러 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문예위 주최로 업무보고 및 토론회 때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제에서 향후에는 무용계의 중복 다중지원이 없도록 사업개선을 하시겠다고, 무용계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8월 28일 현장 공청회. 이것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패널로 발언도 했고요. 여기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무용계 전문가들이 무려 4시간을,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을 비롯해서 공연팀과 전문가 간담회가 밤 8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용계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과 그다음에 비상임위원 무용분야 위원이 의견 개진을 한 것이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안)에 반영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에 대해서는 ‘예고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고제라는 것은, 그러면 기존 문예위의 신규사업, 폐지사업 등 기존에도 전부 예고제를 실시했어야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 무용계 청년무용인들을 비롯해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2026년도 문예기금 정시공모(안)이 의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돼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문예위 간부 단톡에 몇 자 의견으로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용계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예위 주최로 현장 여론수렴은 왜 하는가? 그리고 관련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브니엘예고 사건으로 무용계는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단지 입시, 콩쿠르 그다음에 협회 주최의 강습회, 콩쿠르. 그리고 문예진흥기금까지 다 연동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무용계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6년도 정시공모(안)으로 공고가 돼서 앞으로 추진될 시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는 여론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 공연장 안전사고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예위 주최로 이루어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아르코썸페스타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20대 청년무용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앞으로 무용도 중단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산재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서 특히 출연료 같은 것이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해외단체가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는 의구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용계가 예민하고 혁신과 변화를 문예위도 지원기금에 있어서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제 정리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2026년 서명결의로 이루어진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안)이 의결되었는데 의결 정족수와 의결 찬성과 반대 경위에 대해서 저는 사무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성기숙 위원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고 의견을 내셔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표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정족수는 11명이었고 11명 중에서 8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업무보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현장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올라온 중에 중복지원 문제가 한 그룹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차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무용협회 단체가 정부의 위탁을 받았던 과정 등은 일시에 그것을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를 드렸고요. 각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전체를 취합해서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기한 대로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보통 수십 건의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십 건의 의견을 100% 다 받아드릴 수는 없고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의견들을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지금 또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장의 공청회를 왜 하며 현장업무보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하고 나서 하시죠.

성기숙 위원 :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병국 위원장 : 일단 보고사항을 하고 나서 하시죠.

성기숙 위원 :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것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하세요.

성기숙 위원 : 지금 말씀에 문예위 정부 주도의 위탁사업, 지정사업을..... 무용협회의 전국

무용제와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모두 대한무용협회 사업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다른 내용이었고요. 전국 무용제 같은 경우는 무용계의 여론수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최한다는 것을 지난 전국무용제 대전에서 이루어진 폐막식장에서 대한무용협회장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셔서 무용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고요. 전국무용제는 서울시를 제외한 국가균형발전 지역문화 격차해소 차원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30년 동안 한 번도 서울에서 개최되지 않은 것은 그런 연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 관계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 결과와 향후 조치. 아직 예산편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용계 여론수렴 관련해서 다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지요.

정병국 위원장 : 왜곡하지 마시고요. 다 반영했다는 게 아니라 다 반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다 반영드릴 수 없다. 100% 반영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하지 마세요.

성기숙 위원 : 예. 김성범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안) 표결에 대해서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11명 중에 8명이 의결에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의결에 참여한 위원과 3명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참여하지 않은 위원만 거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하지 마세요.

성기숙 위원 : 무용계에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결국 의결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하지 마세요.

성기숙 위원 :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장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 이 위원회는 위원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위원회 전체가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고요. 모든 걸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한 사람은 책임을 지고 찬성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혼자 하셔야죠. 어떻게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위원회라는 개념도 모르고 들어오신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언어를 정제해서.

정병국 위원장 : 아니 정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숙 위원 : 위원회도 모르고 여기에 와 있냐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이 뭐니까?

성기숙 위원 :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공개모집 할 때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왔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잘못 인지하고 계시네요.

성기숙 위원 : 회의마다 발언하는 저에 대해서 과한 표현.

정병국 위원장 : 과한 요구를 하시니까요.

성기숙 위원 :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과한 요구를 하시니까요.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위원회의 결정은 표결된 것은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 고 사 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첫 번째 보고안건 2026년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계획(안)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5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계획(안)입니다.

저희 극장의 정기대관 운영 방향은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함께하는 과정과 결과 중심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 기후위기,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3가지 가치를 설정하고 함께 예술가들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제사업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제적 성격의 축제사업의 경우에는 2개년을 심의를 통해 결정해서 대관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장르 간 연극, 무용 그리고 기타 축제사업과 예술가 간 균형 있는 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기대관 공모 개요입니다.

대관 신청 자격은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공고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총 40일간 공고를 하고 접수는 11월 17일부터 15일간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기공모 공모 설명회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입니다. 저희 파트너페이지라는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심의 기간은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차 장르별 서류 심의. 연극, 무용, 다원을 섞어서 2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인터뷰 심의는 축제사업 중심으로 2차 인터뷰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3차는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통과한 대상 공연들을 모아서 전체 대관 일정과 일정을 조율해서 최종결정하는 3차 통합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는 2025년 12월 말 예술극장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 극장과 기간입니다.

2026년은 2025년에 비해서 대관일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이 지금 지은 지가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상부의 기계를 전면 교체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569일을 저희가 대관 가능 일수로 갖고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공모 제외 기간을 적었는데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이 저희 극장에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술극장이 하고 있는 봄작가 겨울무대 그리고 댄스프로젝트 같은 기획사업들이 72일 정도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술극장과 벽산문화재단이 MOU를 맺고 공동기획하고 있는 공연이 12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국제성 축제사업으로 2개년 선정된 작품들이 4개의 축제가 있는데 48일간 진행되는 일정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극장 보수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이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대 상부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와 더불어서 소극장에 소음이 유입되어서 소극장은 1개월 정도로 12월에 휴관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향후 공사기간이 줄어지면 수시대관을 통해서 예술단체에게 대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추진 절차와 방법입니다.

심의위원 구성(안)은 1차, 2차, 3차로 진행되는데요. 무용, 연극 분야별 각 5인으로 구성하고 1차 심의를 통과한 축제사업과 통합심의에서는 분야별 통합해서 5인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연극분야 2인, 무용분야 2인 그리고 저희 극장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저희 공연장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르별 현장 전문가를 섭외하되 저희 심의위원 풀과 그리고 저희 극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심의위원들 가운데 다년간 참여한 분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새로이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안)은 해당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팀장님께 여쭙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보고 건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음악과 국악 쪽은 아예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연시설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된 연유인지를 제가 알면서도 또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향후 개선 등을 했을 때 향후 음악과 국악 쪽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금 현재 저희 극장은 음향 반사판이 하나도 없는 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홀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어렵고 지금 저희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쪽의 오페라, 전통, 국악과 같은 분야의 공연들도 신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도 저희 극장 가치에 맞는 작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 음향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극장의 인프라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결정해서 공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작산실도 음악과 전통분야가 저희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은 실은 제가 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를 보면 크지는 않지만 미술관도 있고 연극을 위한 극장도 있는 반면에 “왜 음악과 국악은 여기에는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아무것도 없나?” 시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쓰면 좋겠는데요. 그 가능성이 제일 낮은 장르가 저희 둘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저는 왕치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옳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 아르코데이 때 우리가 지원했던 젊은 작가들 10명을 선발해서 극장에서 발표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는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깜짝 놀란 게 극장이라는 공간을 자기들이 활용해서 거기에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장르 간 장소의 제약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미술관도 가지고 극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모든 장르가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지원체제로 지원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왕치선 위원님 지적도 있으니까 내년 공모에는 여기 정해진 것 외에 대관할 때 여지를 두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향후 그런 사안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금 저희가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분야. 실제 다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은 들어오고 있고요.

정병국 위원장 :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지를 몇 월까지는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쓰지 않으면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저희 극장의 가치 중에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장르적 안배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을 저희가 수용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왕치선 위원 : 제가 이 자리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무용 쪽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약간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위원회의 지원제도는, 특히 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항상 새로 만들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무용 쪽의 공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선생님은 그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어서 “그런가보다.” 우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의 거의 80~90%가 과거의 음악을 공연합니다.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음악은 재공연, 재연 공연의 경우가 많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 쪽으로 가는 포션보다는 그저 옛날식으로 전통을 연주하는 분들의 포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극장에서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실은 다원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극장을 지원해서 선정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향후 그 극장을 리모델링할 때 조금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실은 여태까지, 저의 느낌으로는 소외되었던 장르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도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원의 밤이나 음악회를 할 때 왜 사용을 하지 않나? 그랬더니 음악가들이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음향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기량 발휘가 안 되니까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당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팀이라든가 아창제 조차도 나가서 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후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시설까지 보장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공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각 위원 : 사실 예술극장이라는 게 대관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공연. 하나의 공연장 플랫폼으로서의 기획공연도 간헐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 중심이 대관이다 보니깐요. 그런데 6페이지를 보면 예술극장과 벽산문화재단이 MOU를 해서 공동기획 공연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예술극장, 아르코는 제작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획공연을 이런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벽산문화재단과 MOU 공동기획 공연의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기획공연 관련해서 예술극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대관 중심에서 어떤 기획공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일단 벽산과 같이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것은 벽산회극장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벽산 쪽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공연할 플랫폼도 없고 저희 극장 자체가 그런 시대성을 잘 반영한 작품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MOU를 맺어서 매년 2주 정도 대관을 하고 공연은 실질적으로 10일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획사업에 대한 것들은 연초에 따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지만 저희 자체기획 공연이 여름 낭독시즌이라고 해서 신춘문예를 통해서 선정된, 사실 단편밖에 써보지 못한 작가들을 저희가 연출가와 같이 매칭을 해서 장막회극을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낭독공연을 열게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3개 작품을 선정해서 겨울에 무대에 올리는 제작공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전석이 매회 매진이 될 정도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창작산실 사업이 또 극장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 분야에서 대본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을 여름 낭독 시즌에 낭독 공연을 통해서 일반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있고요. 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던 안무가들, 신진이든 중견이든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안무가들이 있습니다. 창작의 한계를 느껴서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을 같이 인큐베이팅하고 창작의 과정을 같이 고민해 주면서 그분들이 중간에서 스테이지Y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쇼케이스 형태로 보여주고 그중에서도 좋은 작품들을 연말에 공연하는 제작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세계가 ESG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전세계 공연계의 화두도, 역시 예술가들의 화두도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극장 안에서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후에 대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소재들을 전시와 공연의 형태를 통해서 체험형, 관객의 형태로 저희 극장에서 공연하는 제작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극장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예술로소풍이라든가 예술극장시네마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사실 예술가들이 장애 접근성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작업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 왕치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한번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하는데 무용이나 연극 등 공연 중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장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기를 활용했을 경우 더 확장, 창작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적극 권장해라. 그래서 사전에 팀별로 필요한 대관이 있으면 먼저 확보해 놓고 대외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놔어요.

배은주 위원 : 발표 중에 접근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아르코예술극장에서 키아다 공연을 매년하고 있고 저도 매년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베리어 프리한 공연극장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누수된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각 관객석 %에 따라서 장애인 객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르코대극장의 전체 관객석에 몇 % 비율로 휠체어 좌석이 확보되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 좌석에서 저도 관람을 해 봤는데요. 사실 상·하석에 몰려 있고 센터 쪽에는 몇 좌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때 휠체어 좌석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지금 제가 정확한 좌석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아르코대극장의 예를 들자면 맨 앞좌석 제일 가운데 열을 통으로 뺏아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체가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가변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가변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연히 새롭게 극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장애 접근성이라든가 ESG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리서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접근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법이 개정되어서요.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각 극장에서 베리어 프리 관련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나요? 그것은 문체부에서 각 극장마다 무대를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베리어 프리한 극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예산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배은주 위원 : 공공기관도 포함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요?

배은주 위원 :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기숙 위원 : 우선 극장운영팀에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도 했고 내년도 대관이라든가 정기대관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감사합니다.

성기숙 위원 : 사실 아르코예술극장이 연극, 무용. 연극보다 무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고 무용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용중심 극장으로 예전에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아르코예술극장에 실연자로 참여해 보고 관객으로 일상처럼 다니지만 가장 실연자한테도 그렇고 관객들한테도 그렇고 무대공간이 최적화된 공간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이것은 80년대 초반에 최창봉 MBC사장님이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을 할 때 문화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장을 보시고 김수근 건축가한테 의뢰를 해서 무용하는 분들과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토의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무용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르코극장에서 하는 창작산실과 연계된, 저는 여기에서 예술적 성취와 작품성과 예술성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제가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5쪽에 기후 위기에서 기후생태계,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너무 획일화 되는 경향성이 작품에 나타나니까 창작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장르 간 축제사업 예술과 균형 있는 공모운영인데요. 물론 아까 왕치선 선생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장르 간 안배는 리뉴얼을 해서 새 공간이 탄생되면 그것은 문예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균등한 쪽으로 가는 것은 차후에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뮤지컬에서 16억 지원하는 것에서 사실 무용계의 여론은 너무 많은 액수가 연극 쪽과 뮤지컬에 간다, 그리고 아르코극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무용계의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의 정기대관 공모 개요에 보면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 접수 시작일에 정기대관 공모 설명회를 별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정기대관 공모 시작일보다 설명회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이 절차상 어떠실지요? 이것은 사무처에서 정기공모 시작일에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보통은 그 이전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 현장 예술인한테는 자기가 대관할 때 이 설명을 듣고 일정을 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공모 제외 기관의 표를 보면 정기대관 기 선정작은 2년 그대로 간다는 것 중에 크리티스댄스페스티벌과 서울국제즉흥춤축제 2개는 2년 간 그대로 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맞습니다. 올해 선정되어서 2년 동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성기숙 위원 : 2024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2025년 정시공모 때 축제사업 중에서 2개년으로 선정된 작품이라서 이것은 2026년까지 대관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 왜 이 2개 페스티벌을? 왜냐 하면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 문예위 전담심의제 적용사업이고 공연예술제 아르코썸페스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이고요. 그런데 크리티스댄스페스티벌은 댄스포럼에서 주최하는 젊은 안무자 공연잖아요. 그런

데 이것은 문예위가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들이 대관 기간이 길어지니까 현장에서는 개인한테 대관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가 뭐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6쪽의 이 부분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표명되었는데요.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년간 참여한 비중이, 그 말씀은 저도 드렸고 현장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성기숙 위원 : 이것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왜냐하면 좋은 성과를 내고도, 대관은 작년에 불만이 현장에서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르코예술극장은 사실 올해의신작이나 창작 산실처럼 문예위에서 하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서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해외 연계까지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산재보험이나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여쭙봤어요. 그래서 가장 진보적으로 선진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연팀에서 하고 있는 창작주체. 지금 세종시에서 사고가 난 창무국제공연예술제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도 미가입 되어 있고 계약 관계도 불투명하고 출연료 부분도 11명이 출연하고 이틀간 현지에 가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30만 원의 출연료를 줬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문예위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출연료가 이렇게 되면 주최 측에서 젊은 무용가들을 착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연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계약 관계, 산재보험, 출연료. 출연료는 아니죠. 이런 디테일하게 다듬어 진 것을 문예위의 다른 공연팀이든 청년도약사업을 하는 예술인재양성팀이든 이런 것도 공유를 해서 함께 동반해서 앞서가는 작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해보험 가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극장은 이미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거의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관 단체는 출연진부터 창작자, 무대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당일 리허설 전에 그러니까 무대에 들어오는 날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감독들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오케스트라 피트 같은 경우도 안전가이드를 치고 만약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간 상황이라면 무대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리허설 감독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년 축제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제축제의 경우는 대관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해외의 출연진 섭외가 어렵다고 해서 이 상황들을 몇 년 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2년 동안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잘 진행되는지는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만약에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기후나 접근성, 다양성과 같은 주제, 소재에 제약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심의에서는 작품의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는 제약을 절대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 중에서 저희의 가치와 맞는 작품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공동기획 또는 접근성 운영협력.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싶은데요. 아르코극장에서 무용제는 대관 이후 대한민국 명작의 산실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지금 연령이 70~80대부터 50~60대까지는 아르코극장 무대를 전부 다 거쳤습니다. 뭐라고 하면 아르코극장에서 초연을 했거나 리바이벌한 작품이 다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관이 공모제이지 않습니까? 대관 공모를 할 때 아티스트의 작품 창작의 성과가 날 만한 것에 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협회 같은 데의 행사성 대관이나 무용콩쿠르 시상식 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성, 소비성에 아르코예술극장이 대관되는 것은 지양하고 창의성 있는 작품창작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예술계의 바람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참고로 세종시에서의 사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전담 심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모니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공모했을 때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문제나 출연료 지불문제 등이 전담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 2025년 예술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보원 예술기록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사업 쪽이 아니고 기록관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쉽게 드릴까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최대한 예시를 갖고 지금 기록원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록원의 보고안건은 2025년 디지털아카이브 운영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393차 의결안건으로 저희 기록원의 2025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렸고 그때 기록원 올해 기록관리에서 데이터 관리로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간단히 보고를 드렸

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현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읽지 않을 겁니다. 용어도 익숙하지 않으셔서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요약해서 해 주세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현재 저희 기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표 왼쪽을 보시면 예술기록원 대표누리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대표누리집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정보와 저희 기록원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일명 다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누리집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록에 대한 원문과 디지털화된 기록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누리집입니다. 이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 연계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활용하는 검색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향후 통합하고 일원화해서 통합 디지털아카이브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 예술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 3개년 계획을 간단히 썼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서관리, 기록관리, 데이터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면한 목표 상으로는 예술기록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뒤엎고 데이터 관리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현재 기록원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록원에서는 도서관리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운영해서 그 틀을 기록관리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어 왔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록관리와 도서관리의 큰 차이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밑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구술채록의 예를 들면, 채록문 1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제목과 단행본, 발행처가 다 기재되어 있고 그것을 시스템에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관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사실 그것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채록에 나가면 영상과 채록문으로 발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보존형과 편집본과 서비스본으로 나뉘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술 생산 기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술자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들을 또 수집하거든요. 그러면 기증 기록과 저희 구술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술 채록으로 엮이기는 하지만 생산처가 다 다르잖아요. 이들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어떤 수집형의 계층관리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이 기록과 이 기록 사이의 연결 관계가 수직형이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기록물 사이의 관계성, 연관관계를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데이터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조금 더 이용자 입장에서 보기 좋게 하는 방법이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간 기록물 사이에서 관계를 표현하기가 좋으려면 하단에 보시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당연히 전

제로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들을 각각 다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관리가 돼야 이런 통합적인 의미 관계의 표현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저희의 운영계획을 3개년으로 명확히 명시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록관리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는 계획도 한꺼번에 같이 병행해야 하다보니까 현재로서 올해는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반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 정제가 공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가서는 저희가 통합DB를 운영하게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 관리와 표준화 정제가 된다면 이용자께서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다음 항목인데요. 세 번째 데이터 큐레이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리, 기록관리에서는 목록형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 관계나 입체적인 검색 수요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에서는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용자들께 기록물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밑에 ‘구술일화’로 본 한국근현대예술인 온라인 관계망 구축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념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구술자분들, 보통 80이 넘으니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구술기록을 남기기에는 사업현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때 저희가 전 장르 연구자 15인을 2개년으로 해서 구술자분들께서 구술을 말씀하시는 패턴 자체가 본인의 생애를 되돌아봤을 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벌어지는 일화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혈연, 학연, 지연 등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본인과 의미 있었던 누군가를 거론하시고 그것들 안에서 있었던 일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화해서 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단순히 특정 장르가 아니라 우리가 전 장르적인 측면에서 예술계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공연대본이나 프로그램 등 연관 자료까지 맥락을 엮어서 서비스를 한다면 현장의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연구자들께서 언제 이것이 구현되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공공데이터로 기술이 돼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시스템에 구현해 내는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라고 있는데요. 앞서 데이터 큐레이션 강화 보다는 조금 더 범위 안에서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양적으로 많이 늘리고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디지털화해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방식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용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시고 어떤 키워드를 이용하시는 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위에 그려진 ‘구술일화’를 통해 본 한국근현대예술인 온라인 관계망 구축모델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AI 서비스는 이 시스템 기반이 되면 정말 더 서비스 품질이 고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3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서비스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 나서 표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현

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행화하는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2027년도에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록형 서비스하고 원문 서비스가 나뉘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이용자들이 한번에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예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리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외부와의 연계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희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방문 했었고요. 제가 특별히 전체 회의에서 한번 설명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고로운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다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각 미술관, 박물관 DB를 구축하는 단계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아날로그 상태도 잘 안되어 있고 디지털로 하고 있는 게 지자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DB를 구축하고 디지털화해서 현재까지는 이용자들이 검색해서 원본과 간단하게 목록한 것을 검색하는 형태. 그래서 기록원에 가서 확인해서 참고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AI라는 게 들어온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시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시각화하는 게 아니고 원본 데이터도 그렇고 이어령 장관이라고 하면 이어령 씨가 작품한 내용의 의미라든지 다른 기관하고의 활동과도 연동해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AI 심의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병행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가 기록물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워서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은주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기록영상물을 영상으로 봤을 때 보존물이 있고 편집물이 있고 서비스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존물은 원본일 테고 편집본은 최종적으로 편집돼서 보관용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물인데 서비스물이 일반에 공개하는 자료죠. 그래서 서비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도 결국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결국 사이트 구축인 것인지?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사이트 구축에 대한 것은 기록물 외에 우리들이 PC에 접속하면 누구나 사이트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예.

배은주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왕치선 위원 : 저는 과정의 지난함과 어려움은 사용자가 알 필요는 없고요. 수고가 많으셨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알고 싶은 게 우리 기록원의 자료에 접근하는 분들의 현황과 기록원의 자료를 인용해서 도출이 된 논문의 현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파악하는 수준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소장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페이지뷰의 건수를 집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누리집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이 자료를 가지고 논문에 활용할 경우 저희한테 대외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논문을 쓰실 때는 그냥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신다거나 또 다른 창작에 활용하고 싶다거나 전시나 공연에 이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협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기록물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왕치선 위원 :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가 실은 기록원을 우리 일반인이 얼마만큼 가치 있게 느끼느냐의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간 회의를 통해서 통계는 매번 홈페이지 자료는 공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요청해 주시면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모든 기록이 기록되고 정리가 되어야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차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가목록이라도 나오면 저희가 가목록을 저희가 누리집에 올려서 “이러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리고 가목록을 PDF파일로 올려서 신청을 받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장 기록물들이 완벽하게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소실되는 자원들인데요. 이게 쓰이든 쓰이지 않던 간에 국가적으로 보관할 의미와 책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연구자들이 이 자료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자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디지털 아카이빙화 하겠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정부 기록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 데이터들을 모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고 한지가 이미 10여 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다.”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준도 없었고 서로 호환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다 차단이 되어 있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도 이 정부가 AI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디지털화를 하는데 예산도 늘었는데 얼마만큼 될지는 의문이 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원장이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자료가 들어오면 목록화하는 정도였던 겁니다. 목록화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로 채록까지 가거나 채록하는 과정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영상물들, 쪼가리로 되어 있던 것을 편집해서 박경리라고 하면 박경리에 대해서 통으로 볼 수도 있고, 연구자들은 쪼가리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정도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데이터화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치면 통계도 나오고 뭐든지 뽑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야 AI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간다. 여기까지의 단계로 가야 제대로 된 디지털 아카이빙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모 위원 : 왕치선 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설명해 드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술가치소위원회에서 웹진을 어떻게 반영할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회수만 했는데 두 번째로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데이터 분석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왕치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과연 사용자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현재 조회수가 아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한 것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장미진 위원 : 어리석은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꼭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나 자원이 디지털화조차도 %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언뜻 보니까 K-아트메모리,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기대한다는 표현들이 있길래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면 자료원에서는 혹시 자료의 디지털화, 그 전 단계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더 유리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말미에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활용도 중요하죠. 공공기관이니까 활용도 당연히 중요하고 활용수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록원 본연의 역할을 보자면 1차적으로 기록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뭐가 있는지? 그 기록의 성격에 맞게 구조화해서 관리를 한 뒤에야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원으로서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보면, 사실은 되돌아가서 원천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기록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분별하게 디지털화를 한다기보다는 원천 데이터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것을 디지털 시각화 서비스는 안 될 것 같고요. 본연에 충실하면서 하나하나씩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문모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면요.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래 하고 있던 채록과 기록을 목록화 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증액 요청한다고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AI에 대한 것에 중점을 뒀으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이 작업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술기록원에서 AI를 분석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서로 상호 연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기는 저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아마 우리 예술기록원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저는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안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위에서 예전에는 이 건물이 80년대에는 자료실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다닐 때 여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예술가의 집에 있다가 국립예술자료원으로 서초동 예당으로 갔잖아요. 정영순 실장님이 자료원에 계시면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저는 예술자료원이 문예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나 정신문화적 가치를 다루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조금, 여기는 지원기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해 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고도화나 데이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생산되는 데이터가 장르 내에서도 시대가 바뀌어서 유형과 형식과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술자료원에 있는 인력, 시각예술, 연극, 무용 등 분야별로 있으시죠? 그런데 디지털 관련된 것은 기술적인 또 다른 영역인데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15억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4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내부에서 하는 것인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아웃소싱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맞습니다. 예술자료원은 원천자료가 망실되고 소멸위기에 있을 수 있는 공연예술자료에 대한 수집과 원천자료에 대한 수집과 관리, 소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말고 소장되어 있는 희소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전시나 활용 방안도 저는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저작권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일반인들한테 제공할 때 이미 기 소장자가 있거든요. 예술위가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갖고 있는 원천 소장자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저작권문제. 또 AI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진화와 함께 저작권문제를 디테일하게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6시면 문을 닫죠. 사실 저도 아슬아슬해서 몇 번 갔다가 문이 닫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예술의 전당이나 국악원과 인접해 있는 공연장은 8시 공연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술자료원에 가서 자료 열람을 하고 보고 싶은데 문이 닫혀서 못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예위가 예산문제가 있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좀 연구를 하셔서 8시 정도까지라도 연장해서 개관을 한다면, 별도의 수당을 책정한다거나요. 왜냐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술계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학로에 분원이, 예전에는 여기가 본원이었죠. 그런데 분원으로 예술가의 집에 있다가 그것까지 폐쇄가 되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옮겨왔어요. 대학로극장예요.

성기숙 위원 : 대학로극장에 있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작권문제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몇 가지 문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정병국 위원장 : 간단하게 하세요.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운영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회까지 통과해서 15억 배정이 된다면 사실 기록원 입장에서는 추경 이후로 전무후무한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내년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쓸 수 있도록 내부 준비 중에 있고요. 인력도 사실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분이 1명 T/O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게 기반 구축을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고 분석하며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는 사실 전공자가 없어서 저희가 파견 인력에 전공자를 뽑아서 지금 한창 자문하고 리서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억에 대한 아웃소싱과 내부 수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기록원의 운영체제가 5개 장르체제와 디지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메타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를 위해서 디지털 파트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으로 가서는 장르로 좀 나뉘질 것 같은데요. 아웃소싱과 내부 수행을 같이 병행하게 되고 무조건 이것은 아웃소싱으로 될 수가 없는 문제라서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시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아카이브이다 보니까 원본 자료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지털화는 원본 자료의 아우라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원 테이블 원 시트를 통해서 수장기록을 등록하고 공개한 것을 다시 또 원 테이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을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분원은 지금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술기록원은 절대적으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증을 받았거나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요.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요. 거기에다가 디지털화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 다행스럽게 기재부로부터 6명의 인원을 증원 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록원에 디지털 전공자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해서 배정하기로 했어요. 지금 15억이 디지털화 작업으로 내려온 것도 이 정부가 AI정부를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 구문모 위원님이 방문하고 나서 이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각 위원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록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1차적인 미션이고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기록을 관리한다는 게 그냥 박물관처럼 보관해 놔야 한다는 의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디지털아카이빙을 구축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록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천IP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쪽의 작품을 만든다거나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작품을 만드는 거나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 더욱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아카이빙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예술기록원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기록원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다만,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기록원에서는 나름 기획전시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력도 부족하지만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간 이전을 하려고 예술의 전당에 임차를 해서 있는 건데요. 지금 해서 장소까지 정하고 추진을 하는데 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너무 열악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처음 보고를 받으시면서 전반적으로 “기록원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텐데요. 나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저도 현장에 갔다가 왔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좀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와서 열람도 할 수 있고, 기획전시가 상설화될 수도 있는 쪽으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궁금한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국립예술자료원이 공연자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발굴·수집, 관리 차원인데요. 그것과 함께 새로운 자료 생산적 측면에서 예술인 구술채록이라는 두가지 트랙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증언채록은 오래되었잖아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술인들이 기록으로, 음성과 함께 책자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유산청이든 국립국악원이든 이런 데에서 후발로 증언채록을 해서 문예위에서 했던 작업이 롤모델로 참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정부 때 주제별로 특화해서 증언 채록을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용 분야만 봤을 때는 문화운동적 측면에서 활동했던 5인에 대한 주제별 증언 채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향후에 기록원에서 주제별, 테마별로 별도의 증언 채록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당사자 이야기가, 그 분야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내재화된 전문성이 있어야 질문도 하고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어떤 고도의 질적 가치가 창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선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보원 예술기록원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술 채록을 생애사와 주제사를 애초부터 설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술 후보자의 인력풀이 작고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900여 분이 넘으세요. 그래서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생애사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생산적인 측면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술 채록 컬렉션 운영관리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다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생애사와 주제사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생애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에서 구술기록과 기록물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기록물 컬렉션의 특성을 조금 강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주제사 구술채록을 같이 엮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전문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협조와 연구자의 전문성이 같이 결합이 될 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예전에는 저희가 구술 채록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구술 채록을 운영사업을 하고 있고 컬렉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안내하는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자들을 섭외할 때는 구술자의 활동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논문이나 현장에서의 업무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섭외해서 이분들과 사전 면담을 하고 워크숍을 2~3번 정도 진행한 뒤에 채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 경영전략소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회의 안건은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무처에서 임직원 설문조사, 중장기 경영전략 개선을 위한 임직원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러한 내용으로 나왔다는 것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치상 조금 낮게 나온 전략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사무처 임직원들이 중장기 경영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던 중장기 경영전략(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가 있었으면 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임직원들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보는 의견이 이렇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과제, 전략목표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책의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크게 손질하기 보다는 조금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사무처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과 2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6쪽에 보시면 전략과제, 현행 전략 체계가 있고 변경(안)이 있습니다. 변경(안)이라는 것은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나타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들이 꼭 제시되어 있고요. 전략목표와 관련해서는 좀 세분화가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략과제를 조금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나왔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당을 바꾸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하고 매칭이 되는 식으로 전략과제를 조금 수정하고 넣고 빼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다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경영전략소위원회 2024년 8월부터 직무를 시작해서 정갑영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활동했는데요. 그때도 맹렬하게 만나서 토의하고 연구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한테 문예위의 경영전략과 미션을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훌륭하게 세팅이 된 안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매년 문예위도 기관평가를 받잖아요. 경영평가요. 이게 혹시나 경영평가용으로 매년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물론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경영전략을 바꾸는 것이고 경영전략은 어찌 보면 우리 기관에서 현재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변화에 따라서 전략은 매년 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롤링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받기 위해서 보고서 등을 수검 받기 때문에 전략체계에 따라서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롤링 작업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회의자료 24쪽에 보면 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로 2005년에 진흥원 체제에서 전환돼서 2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무와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세미나나 포럼을 해서 한번 내부 점검을 하고 향후 방향성에 한번 짚어보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려서 지난번 경영전략소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회의자료에 추진계획(안)이 있을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지난 경영전략소위원회 때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김진각 소위원장님이나 기획조정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날 참석을 못 하셨고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조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 기획조정팀에서 예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것이고요.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20주년이라고 하는 일종의 예술위원회 생일이라는 개념. 그런 쪽으로 학

술적인 논의보다는 그런 것을 기초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향후 10년, 2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하드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정되어 있는 것은 11월 13일에 나주 본관. 나주 본관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한 장소에서 창립 2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요. 지금 주신 의견들을 반영한 심포지엄을 오전과 오후에 하고 저녁에는 기념 겸 나주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한 장소에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음악회까지 하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날짜도 되었고 프로그램도 세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프로그램은 세팅이 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향후 경영전략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안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와 장소를 미리 잡아놔야 가능하니까요. 논의는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생일잔치 성격으로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소프트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정병국 위원장 : 소프트하게 안 해도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께서 소프트하게라고 말씀하셔서요.

정병국 위원장 : 내가 소프트하게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20년을 점검하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정부터 잡아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나주의 새로운 다목적실을 리모델링 했고 그것을 활용해서 알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검사해서 일정은 그렇게 잡았으니까 콘텐츠는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전 전담심의제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전담심의제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저희가 지원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내용이 있는데 설문조사 정리가 늦어져서 해당 자료는 지금 저희 담당자가 별첨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고 논의 방향에 따라서 향후 진행경과와 설문조사가 진행된 내용. 그리고 사무처에서 검토한 추진(안) 초안을 한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전체를 다 읽지 않을 것이고요. 중요사항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달 전체회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께 전담심의제 개선 의견을 서면으로 조사했구요. 위원님들 중에 6인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달 전체회의 때 전담심의제가 지금 1년이 다 운영되지 않았는데 성과를 점검한 후에 개선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왕치선 위원님께서도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후에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도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12월, 1월까지 한바퀴 다 돌린 다음에 설문이라든가 성과 조사를 하기에는 시점이 좀 늦기 때문에 지금 정책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대상자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규모는 전체 지원단체 실무자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523명 정도가 되고요. 전담심의제 제도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초 9월 22일 월요일까지 진행 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안내가 나갔다가 응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9월 24일 수요일까지 연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전에 정갑영 위원님의 제안으로 지원심의제도 책임성 확보 방안 연구가 현재 기획조정팀 연구 파트에서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위원님께서는 인터뷰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담심의제 시행을 시작으로 해서 비상임위원 심의위원회 참여라든가 심의제도 변화에 따라서 책임성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현재 연구진이 정해져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경과는 일단 인터뷰를 대내외 관계자 30명 정도 진행하기로 했고 50% 정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9월 현재까지는 이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비상임위원 심의 참여와 심의 참여 여부에 따른 외부 인사 추천 권한은 일단 김진각 위원님, 서승미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께서는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외부 심의위원에 대한 추천 권한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미라 위원님, 김진각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치선 위원님께서는 전담심의관과 비상임위원이 지원시스템 전 과정 참여에 있어 사업 현황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진각 위원님께서는 비상임위원이 심의 참여를 하고 외부 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직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규모나 기타 운영 방향 관련해서는 큰 이견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담심의가 끝나고 전담심의위원을 모시고 리뷰 회의를 할 때부터 나왔던 의견인데요. 김미라 위원님께서도 현재 전담심의위원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수행하기 때문에 심의의 양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심의의 질이 떨어지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심의위원 그룹을 확대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승미 위원님께서도 저희 리뷰 회의 때 심의위원이 직접 의견을 주신 대로 심의 수당 상향이라든가 심의위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인사 최소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왕치선 위원님, 이훈경 위원님 그리고 서승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 저희가 지난달에 보고드렸던 사안 중에서 전담심의위원 구성 명단에 대해서 공개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 왕치선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들의 심의 종료 이후에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왕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심의 결과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획조정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나 내부 숙고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담심의제 적용사업 지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비율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없었고 전담심의제에 대해서 인지도도 높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도 계시고 격려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만, 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사무처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 사무처의 입장에서 이런 우려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중앙에 조사 결과 요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무용 분야가 27.7%로 가장 높았고요. 지금 본인이 선정된 사업이 전담심의제 적용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70.9%로 많은 비율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신청 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변해 주신 분이 48.6%고요. 선정사업 심의 이후에 모니터링·평가 고정에서도 전담심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봤는데요.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66.2% 그리고 각 사업팀을 통해서 안내가 되었다고 해 주신 분들이 53.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취지·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 44.6%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의 의견을 보시면 실제 저희 사무처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방향성을 세웠던 것을 잘 이해하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들을 자세하게 서술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전담심의제 사업이 아무래도 여러 사업에 대해서 소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평가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시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측면도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심의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평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경험하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니터링 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셨거나 행사장에 오셔서 조금 부적절한 의견을 현장에서 전달해 주신 경험들을 조금 자세하게 기술해 주셨습니다. 원문 그대로는 나뉘드린 별첨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심의위원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심의위원이 어떤 의견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의 창작방향을 한번 더 숙고하거나 격려를 받는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설문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로 넘어가면 전담심의제도의 취지 이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답변하신 분들의 39.9%가 긍정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무래도 공정성으로 77.7%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 이유로는 전문성, 윤리성,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 참여자 구성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시면 비율이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했을 때만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55.4%, 외부인사와 비상임위원은 보통 의견을 주신 분들이 37.2%로 가장 높았고요. 외부인사와 전담심의관 구성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45.3%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사와 비상임위원 그리고 전담심의관의 구성안도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해 주신 비율이 41.9%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전명단 공개 후 공개검증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86.5%였고요. 결과 발표할 때 선정자 평균점수 공개에 대해서도 54.1%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르코가 타 기관에 비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냐?”라고 해서 저희가 예시를 제시하고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가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별성 차원에서 가장 높은 48.1%로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제안사항은 현 제도에 만족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불만족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전담심의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내부직원 참여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 났는데요. 내부직원을 전담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연관 관련 분야 공연 관람 횟수,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수 확대라든가 구성의 다양화는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전담심의제 개선계획 초안을 말씀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의 인원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권한이라든가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전담심의제 개선계획의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그리고 저희가 이미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담심의위원 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김미라 위원님께서도 다른 제안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전담심의위원을 모시고 검토회의를 할 때나 담당 사업팀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당초 창작산실 주체와 청년예술가 도약지원까지 1그룹으로 묶어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절대적으로 모니터링의 양이 너무 많아서 분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을 했고요. 다만,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의 경우 연령층이 굉장히 어리고 젊은 예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심의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창작주체나 창작산실, 조금 더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대상인 예술단체를 심의하는 분들과 동일한 그룹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사업은 아예 분리를 해서 세 번째 그룹으로 운영해 볼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번 전담심의위원 구성 규모 확대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인사는 5인 이상으로 전담심의제 시작 전에 저희가 운영하던 방안 그대로 다시 원복을 하고 위원님이나 전담심의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5인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개념으로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심의위원 회피기준 세분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관련 규정 내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해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옴부즈만 접수 때 법률 기준으로 기술된 내용이 현재 예술 분야는 프리랜서가 많은데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용역 등으로 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술 분야에 맞게 해당 내용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안)에는 회피대상이, 11조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 자신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문과 자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갈려서 여기에 용역이라든가 계약사항에 대한 것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 제4항 3호에 보시면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신청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밖에 불공정 심의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상 3호는 심의위원회 자체 판단의 영역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이드에는 여러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는데 사업팀에서는 이게 규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야지 조금 더 구속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에 대한 예시를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개인적 친분, 직장 동료, 친인척 관계, 사제지간, 공동작업 관계” 이런 예시 정도로 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4번을 보시면 전담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명단을 계속 게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개검증 기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단체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시행을 할까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까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종료하려면 심의위원 구성과 1차 서류심사, 인터뷰심사의 일정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지금 공개검증 기간까지 저희가 가지려면 사실상 10월말 접수 전에 사업팀에서 미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 구성(안)을 만들어놓고 접수가 완료되면 이해충돌이라든가 제척·회피사항이 없는지를 한번 더 검토하고 적어도 11월초 안에는 전담심의위원 구성(안)이 확정돼서 둘째, 셋째 주에는 게시가 되어야지 공개검증 기간을 일주일

정도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검증 기간을 가진 다음에 접수된 사안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에 저희가 진행하던 것보다 조금은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심의 참관인제도는 저희가 과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번 9월 초에 장관님과 예술인간담회 때 심의위원단에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배심원단처럼 일반인이나 다른 분야 사람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건의가 접수되었다고 했고, 문체부에서 도입 가능 여부를 저희한테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안대로 심의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심의장에 입회하여 심사관의 공정성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라는 취지하에 다시 시행 방안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 기관과 유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심의위원 풀 후보단을 모집할 때 심의참관인도 함께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대상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요. 변호사들이 심의·평가 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에서 검토한 방안은 모든 사업에 반영하기에는 저희가 심의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에 2차 인터뷰심의 때 저희 지원심의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이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참관인을 구성해서 이번에 한번 심의운영의 현안을 진단해 보면 어떨까 해서 1차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 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주셨지만 사실 주관식 의견을 보시면 반대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본인의 점수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개별 요청을 저희가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평점은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평가점수 공개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해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저희가 현재 심의제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당연히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한국연구재단도 저희 이상으로 심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행정소송까지 간 판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뒤에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의 판례는, 지금 다른 내용은 다 공개가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온 사안이고 평가위원 점수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다.”라고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평가 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이 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중에 심의위원 대상으로 설문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여쭙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7번 심의위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시범 운영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심의 종료 후에도 심의위원을 모시고 리뷰 회의를 했을 때 심의의 양이 많은 것. 그리고 투입되는 시간이 너무나 방대한 것. 그리고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사례비 상향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의 진단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업팀의 의견을 조회해서 안은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2026년도 심의에 적용하려고 보니 사무처에서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사

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심의 운영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어느 정도 공표를 해 놓고 준비를 하되 2026년이 아니라 2027년 심의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일단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이 앞서 위원님들 의견조회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8번은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 여부 그리고 9번은 8번 의견 결정 결과에 따라서 후보자 추천 권한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후속으로 논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10월 의결안건으로 올릴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9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위원들이 심의 미참여 시에는 후보자 구성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는 김진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사무처의 안을 같이 병기해 놓았는데요.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외부 인사 추천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경우 김진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지금 현재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변형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고 섭외순위는 무작위로 사무처에서 2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방식인, 실제 그분들의 심의일정이나 모니터링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섭외해서 위촉하는 내용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안)을 보시면 사무처(안)은 해당 분야 위원님께서 심의에 참여하시고 추천 권한이 축소되는 경우 해당 분야는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무처와 비상임위원이 동수로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섭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두 번째 단락의 의견조회를 보시면 하시겠지만 이게 내·외부 상관없이 특정 그룹이 저희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권한, 평가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높기 때문에 2026년도 심의위원 구성은 2025년도 심의위원과 겹치지 않도록 전면 교체 혹은 90% 이상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사안에 대해서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방향성에 따라서 10월 전체회의 때 다시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는 지원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전담심의위원들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오늘 전담심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처음 봤는데요. 그 결과 자체의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제도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적인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도 가장 큰 쟁점은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문지, 자료를 종합했을 때, 그리고 이번 자료 자체가 이해관계자의 설문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더라도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참여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하는 게 더 공정한가

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 비상임위원의 본래 직무에 해당되는가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문예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의 직무는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고.” 그다음에 24조, 15조, 2조 정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비상임위원이 이런 개별 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원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함께 겪었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의 참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비상임위원 책무에도 굉장히 과부담이 되고요. 사무국의 그런 행정적 소모 또한 “과연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시범을 해 봤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단순한 제도로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안해주신 1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저는 한 가지만 먼저 알고 가고 싶은데요. 전담심의회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시겠다는 건지 기본계획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계획은 오늘 논의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고요. 일단 올해 한 것은 작년 첫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은 심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재논의하게 된 요인은 국회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국회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도 있고 현장의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어서 설문도 한 것이고요. 그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사무처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오늘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게 있으면 더 들어서 최소한 다음 달에는 의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미진 위원 : 인터뷰 30명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 내용은 지원심의 책임성 관련된 연구를 저희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정책연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책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장미진 위원 :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시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고 그 전문가에게서 비상임위원의 경우는 심의에 참여하신 3인만 하신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이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외부 연구진이 별도의 인터뷰를 구성해서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외부 연구진은 또 누구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저희가 올해 초에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해당팀에서 위원님들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정책연구 과업들을 받았습시다. 의결을 받았을 때 제안된 것에 대한 선정 결과 연구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때 선정 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외부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미진 위원 : 전담심의제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이 나갔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전담심의제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심의제도에 대한 책임성 연구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그 팀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중에 비상임위원의 경우는 심의에 참여한 3명만 들어가는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비상임위원님들 중에 이미 인터뷰를 하신 위원님들도 4명 정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미진 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모르니까 의견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의견서를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나요, 진행되는 상황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원심의제도 책임성 확보 방안 연구는 비단 전담심의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전담심의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때 정갑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과제 안건을 기획조정팀에서 접수 받아서 진행된 사안이고요. 일단 어느 분을 인터뷰 할 것이냐는 연구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해서 연구진께서 추천해 주시고 그분들께서,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외부 연구진.

정병국 위원장 : 나중에 연구진으로부터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장미진 위원 : 여기에 왜 굳이 차후 진행 과정에 전담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왜 들어간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누구의 의견인가요? 연구진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무처의 의견인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10월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전담심 의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지원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9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대상으로도 공개검증이라든가,

정병국 위원장 : 연구진이 하는 건 별도인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별도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해서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담심의제도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니요. 이것은 전담심의제도와는 별도로.

정병국 위원장 : 김지영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장미진 위원 :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아닙니다. 외부 위원들.

장미진 위원 : 외부 위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의결 자료를 보고드릴 때 같이 담아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런데 다음 달 설문조사 결과를 주시면서 그냥 저희는 의결하는 거죠? 왜냐 하면 설문조사는 아직 안 되었고 앞으로 할 것이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사전에 미리 드러야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배포할 예정이고

요. 연휴 포함해서 중순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설문 문항이나 결과치는 완료되는 대로 바로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의결하기 전에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일수를 역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실은 저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인의 소신들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깐 나도 고쳐야 되나? 약간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조사를 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샘플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가 동의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으니깐 바뀌어야 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런데 아마 예술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라도 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지만 올해는 이미 늦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식의 샘플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신 자료를 보고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특히 장르 쪽 위원님들과 장르가 없으신 위원님들은 보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장르가 있는 위원님들도 실은 자기 장르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은 세부 조사 설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장르별로 나눠 주시면, 장르별 특성이 엄청 다르거든요. 특히 저는 여기에서 음악이 이렇게 16.9%가 대답했다는 것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음악장르의 분들은 이런 것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막 화가 나도 쩡하고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사석에서는 막 얘기하는데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지 절대로 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놀랐어요.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고 막 쫓아오시는 건 제가 추측컨대 저희 쪽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보고 “음악도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왕치선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안)을 만들 때 기본(안)을 드리고 각 장르별로 어떤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그것은 해당 장르의 설문하시는 분들이 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치선 위원 :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식의 연구 혹은 설문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저는 작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회의에서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제 참여 여부에 관해서 굉장히 진통을 겪어서 우리가 규정을 개정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배운주 위원님과 저 그리고 왕치선 위원님이 전담심의제에 참여를 했고요. 저는 사실 전담심의 적용 사업을 다 참여했고 여기에서 포착되는 문화예술기금의 지원방식이나 현장평가 모니터링에 대한 입체적 통찰이 되었기 때문에 긴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담심의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별도의 백서나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장미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지원심의제도 책임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을 일부 하셨지만, 그러면 이게 12월에 끝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용 분야가 27%였습니다. 무용 분야는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이지가 않은 분야인데 27%가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러면 이 배경이 뭘까? 사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색다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담심의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엄청난 진통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해 봤고요. 그렇다면 1년 만에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1년 해본 것으로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었고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지? 제가 1월에 내부 위원인 비상임위원이 참여하신 분들과 전담심의관, 사무처 직원들로 이루어졌죠. 이것에 대해서 심층 워크숍을 하자고 여러 번, 오늘 정창호 공연예술팀장님이 회의에 오셨나요?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메일 자료에도 제안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방식부터 굉장히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원장님이 위촉하여 1년 간 심의와 평가모니터링을 연계해서 위촉장을 받은 전담심의위원들이 장르별로 심의 리뷰회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용 분야 같은 경우는 그때도 무슨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무용 분야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고요.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에서는 전담심의위원 그다음에 전담심의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외부 전담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어떤 배경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불특정다수겠죠. 그렇게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2024년에 전담심의가 결정돼서 2025년 정시공모에서 이 제도를 실행했을 때 결과치는 결국 ‘공정의 가치’ 구현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용분야는 문예진흥기금에서 공정의 가치 실현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지표로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용계의 여론은 전담심의 이전과 이후의 공정의 가치. 그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중복지원, 다중지원이고 지원액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전담심의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무용협회, 세종시의 안전사고 문제가 되고 창무예술원 같은 경우 전담심의 이전에는 다중지원, 중복지원으로 해서 5건, 무려 6건으로 5억 이상, 9억 이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담심의 이후에는 그 수치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담심을 실행한 결과치를 가지고 개선의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승미 위원님께서 비상임위원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렇다면 부정적인 결과치가, 다른 분야를 떠나서 전통예술 분야에는 전담심의제도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논의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전담심의 관련해서는 더 보완을 할 것이고 현장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말씀하셨고요. 10월에 다시 페이퍼 작업을 해서 의결한다는 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결들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문제시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님이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요?

정병국 위원장 : 작년 국감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결위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체위원회의 의견을 결집해 주면,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현장의 의견도 듣고 우리 위원님의 의견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훈경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훈경 위원 :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담심의제 건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보완의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담심의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진통을 겪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느끼는 진통을 겪었다는 것은 비상임전담위원들이 심의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 진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지금 수혜를 받은, 그러니까 탈락한 이들이 아니라 수혜를 받은 예술가들의 평가 내용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내용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11명의 위원들 중에 3명 정도만 전담심의제에 참여하고 계시고 빈도수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비상임위원들이 전담심의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재 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참여한 저의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5인 구성의 체제로 전담심의에 참여를 했고 외부전문가 3명 전담심의관 1명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로서 제가 참여를 해서 다원예술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심의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전문가 3명의 심사 결과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르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느낌으로는 장르 위원일 경우, 비상임이사가 들어갈 경우 디테일한 심사는 될 수가 있지만 저희가 5인 구성으로 했을 때 외부 전문가 3명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큰 점수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임이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인해서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합의제가 아니라 점수합산제로 100%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가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과 그분들에게 집중된 심사. 장르로서 전문가들의 심사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사무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요.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에 보시면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보면 ‘심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 집행 부분은 정관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셔서 의결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사무처를 데리고 집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부를 하거나 혹은 심의를 하거나 혹은 모니터링 평가를 하거나 피드백하는 것은 액팅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집행 권한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까지 부여했는지 부분이 사실은 물음표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 아닌가?”까지요. 더 나아가서 비상임위원들의 전담심의제 참여를 시범적으로 하였는데 이때 위원님들이 저는 지원심의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차후에 피드백 평가를 하는 걸 집행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임위원님이 참여하실 때는 일반인이자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원심의를 하시는 건 일반인으로서 지원심의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외부 심의위원 추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국회도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무처장이 운영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의 논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심의회에 참여했던 비상임위원은 그 안건이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제척을 하는 건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시각은, 그러니까 비상임위원이 심사위원의 추천 권한도 있고 직접 심의도 하는 것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많이 왔고요. 심지어 국회에서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자료 요청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담심의제가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전담심의제에 대해서 초기에 책임심의제라고 해서 “유인촌 장관의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유인촌 장관의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께서 오셔서 “책임심의제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담심의제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전담심의제는, 그러니까 심의를 한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그냥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까지 해서 그다음에 단계적 지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담심의제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심의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있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비상임위원이 심사와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요. 그 의견도 오늘 쪽 듣고 그 안을 가지고 몇 개의 안을 만들어서 10월 전체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 제 기억으로 저희가 2023년도 연말에 저희가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비상임위원이 심사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그때 이것을 저희가 논의하다가 안 들어가는 게, “비상임이사는 심사위원으로 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이 그때 나와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비상임이사가, 먼저 저희들이 의견을 말한 것은 맞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돼서 결국 3명이 들어갔지만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3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그 분야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몇 분 정도는 새로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제가 심사할 당시에 늘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 계속 심사를 했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비상임이사로 들어가는 이 방식은 파일럿으로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저희들이 원래 원하는 방식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불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 놓고 왜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가?”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성기숙 위원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서 ‘아니다.’라고 계속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밀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김진각 위원 : 오늘 사실은 전담심의제 관련 핵심 안건이 비상임위원이 심의에 참여를 지금처럼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을 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상임위원들의 의견은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8번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 여부가 결론 내려져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면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의 결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 아니면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내려지면 두 번째 단계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을 주세요. 여기에서 오늘 의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안을 몇 개 만들게요. 만든 것을 가지고 의결안건으로 올라오면 그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되고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아까 서승미 위원님이 전담심의제에 부정적인 결과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전체회의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회의 강력한 이행 사항으로 말씀하시고 국회 예결위의 전문위원이 전담심의제 관련해서 8월 전체회의에서도 한 쪽짜리 페이지에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강력한 이행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김성범 기획팀장님께 예결위 누구신지를 여쭙봤더니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OO 위원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회 예결위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심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안을 주지는 않을 거다, 만약 그렇다면 전담심의제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상당한 겁박으로 느껴진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님께 국회 예결위 정OO 위원님과의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 여쭙보겠다고 했고 위원장님께서 불가하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께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8월 전체회의의 속취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분 개인한테도 민간자율기구인데 예술인한테 지원하는 문예진

흥기금 심의 방식에 개입한 것처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위 전체회의 자료에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적시되고 문예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논의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민간자율기구인 문예위의 존재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전담심의 내부위원은 비상임위원과 사무처 직원들로 이루어진 전담심의관이 내부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위원 전담심의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참여 여부가 작년하고 똑같이 시작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부위원 중에 비상임위원과 전담심의관. 그러면 전담심의관은 향후 전담심의제에 참여할 때 ‘고정값’으로, 지금 아무런 논의가 없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담심의관도 제가 알기로는 문예위의 임금피크제로 작년에 했던 분이 평가·모니터링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방침으로 제외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전담심의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밖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로 위원이 된 비상임위원이 전담심의제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이고 독점이고 권력화로 인식하고 해석하면서 문예위의 전문성, 사실은 행정이나 서류 검토는 우월하게 잘하실 거라고 저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원심의라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미학적 가치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고정값으로 계속 참여하는 문예위의 사무처, 그것도 위원장님이 선정하는 문예위 사무처의 전담심의관은 고정값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왜냐하면 ‘전문성=공정성’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담심의제 개선 계획(안) 7쪽에 보면 “2026년 공모 심의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평가·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모니터링의 결과치가 2026년도 심의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지원기구로서 가장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담심의제라는 것은 심의에서부터 평가·모니터링까지, 환류까지 세트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심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모니터링 결과치를 가지고 차년도에 지속 지원을 할 것인지?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증거로 삼고자 해서 작년부터 전담심의를 해 왔고 그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회의자료에 보면 평가·모니터링은 진행 중에 있어서 평가·모니터링을 한 결과치는 2026년도 공모 심의제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지난번 우리 전담심의위원들과 사무처분들의 평가비가 없고 예산 문제라는 얘기를 논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다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예위 사무처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위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만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내용은 1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에도 있는데요. “현재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진행 중으로 모든 과정이 종료 후 논의하기에는 2026년 공모 심의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과 왕치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전담심의제라는 1년의 경과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성과를 지금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기숙 위원 : 심의 결과 적용 반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것은 지금 사업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위원장님 의견이 너무 반복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송시경 사무처장 : 답변을 다 못 드려서요. 일단 당연히 심의를 하고 평가모니터링한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원래 취지고 전담심의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부에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한 사람이 가는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으로 가게 하되 그렇다고 전담 심의관 5인이 다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합평회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에 반영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국회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운영평가 기구로서 위원회가 있지만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과 정OO 전문위원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아규(argue)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의견들은 충분히 들었고요.

장미진 위원 :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비상임위원의 참여를 지지하는 편이었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비상임위원이 돼 보니까 하는 게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여기에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르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르의 대표자인데도 역할이 미미한 것 같아서 저는 참여하시는 게, 그렇게 많은 심의위원 중에 1명으로 참여하시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1~2년 끌어오면서 정말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만 증폭되고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유심히 봤어요. 물론 응답자가 148명밖에 안 되는 설문조사가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심의를 받은 분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설문조사인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비상임위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보다는 적절하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의 권한이 너무나 한테 모인다.”, “집중된다.”라고 하시니까 이의는 더 이상 달지 않겠고요. 제 마지막 의견은 여기 설문조사를 존중한다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담심의관도 빠지고 외부 인사로만 구성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전담심의관제를 두게 된 것은 전담심의를 하게 되면 외부 인사들로서 모니터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시간이 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5명이 참여했으면 5명이 다 전담심의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속가능하게 모든 심사 대상을 모니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 왔던 대로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주는데 그것은 앉아서 탁상에서 만들어서 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담심의회제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결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동안 논의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몇차례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년이라는 임기를 두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심사할 때는 우리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품성 중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류상에서 미비하면 아예 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보고 왔던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어느 단체들은 늘 기획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은 대략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개선하자.” 이걸 여러분들이 의결해 줘서 시행하는 것이지 제 독단으로, 내가 임명은 하지만 내가 독단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미 위원 : 위원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를 재의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분들은 서면으로 주시면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몇 개의 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의결안건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A안, B안, C안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일단 의견을 거기에서 또 받아서 최종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의견만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요.

성기숙 위원 : 서승미 위원님이 답변을 안 주셔서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제가 질문드린 거요. 부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삼으려고요.

서승미 위원 :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정병국 위원장님, 배은주 위원님, 설문조사, 기타 등등의 이야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 하신다면 다시 한번 참고하길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구체적으로 전통예술 분야의 어떤 부정적인 게 있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전통예술 분야에는 당연히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걸로, 또 하실 건가요?

성기숙 위원 : 그건 질문이었고 답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됐습니다.

서승미 위원 : 답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성기숙 위원 : 송시경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우리 류재수 본부장님, 송시경 처장님과 같이 회동해서 만나서 확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도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문예위가 민간자율기구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송시경 처장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국회에서,

성기숙 위원 : 또 하나, 제가 전담심의 참여자로서 말씀드리면, A그룹, B그룹 참여 그리고 청년도약지원까지 했을 때 아까 전담심의관계서는 행정검토를 해서 서류를 걸러낸다고 했는데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과 이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정리를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그랬을 때 크로스체크가 돼서 입체적으로 걸러낸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신청서하고 인터뷰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심의, 그다음에 교부신청서상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교부신청서를 보고 현장에 갔을 때는, 교부신청이라는 것은 교부 단계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부 신청한 내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랬을 때 궁금한 게, 그렇다면 교부 단계에서 많은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하는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가 되었을 때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 전담심의위원을 소집해서 검토를 받고 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예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예위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김성범 팀장님과 정영순 감사실장님께 제가 오늘 신문법 등록 위반 매체 춤웹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경위 및 환수조치 건이라고 해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1년부터 춤웹진 「댄스포스트코리아」가 지원금을 받았고 2024년은 탈락되었고 2025년은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담심의 관련해서 예술위 노조나 문화연대, 연극협회의 성명서도 받았고 관련 언론보도로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비판을 받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문예위 간부 단톡에 올려드렸다고 「여성경제신문」 2025년 1월 10일자로 보도되었던 것은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가 언론중재위에서 받아들여져 며칠 전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정정 반론보도가 되었고요. 다른 매체도 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댄스포스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만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신문법에 의한 등록 내지는 신고가 문제부에 되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매체였는데 그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무처나 또는 전담심의관 차원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심의와 의결을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결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심의한 해당 분야 비상임위원들은 심의만 했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감사 청구했고요. 다른 기관에도 해당되는 것은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이랬을 때 전담심의와 관련된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이게 걸러졌어야 하는데 지속지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이 끝내시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만, 죄송하지만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여기에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려우실까요?

정갑영 위원 : 어려울 것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세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심의관제를 하려고 하다가 책임심의 문제가 나와서 현재의 제도로 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담심의관제를 포기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던 전담심의관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게 바로 비상임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문화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심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부분이 설왕설래 돼서 완전히 이상적으로 절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스템이 왔다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2가지인데 하나는 공정성의 문제고 둘째는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정성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아무리 공정하다고 그래도 밖에서 이러고저러고 하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사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공정성 여부에 있어서 비상임위원이 참여를 하면 외부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일단 멈추고요. 비상임위원이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얘기를 다 할 수도 있고요. 비상임위원이 좌지우지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심

의를 안 한다면 외부의 위원을, 전문인력을 추천해서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정성 여부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상대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위원이 직접 심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러면 이건 맞아요. 일관성 있는 구조가 되는데 현재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요. 첫째 그렇게 되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위원회 시스템처럼 어느 한 분야가, 정책이라고 하면 3년, 5년의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1년을 하고 2년은 이렇게 하고 3년은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은 내가 책임지는데 만약 실패하면 사퇴를 하든지 처벌을 받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아까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하는데 참여를 하면 추천하지 말고, 추천을 하면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맞다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이것은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논쟁이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성기숙 위원 :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다리세요.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기숙 위원 :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정갑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의견을,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낼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지 52년째가 되었고,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영국예술위원회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영국예술위원회가 한국의 것을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비상임위원이 직접 참여도 해서 해봤고, 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의하는 것은 제척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 과정이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모아가는 게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여러분이 호선해 주셔서 운영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제가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얘기들을 다 들었잖아요. 몇 차례 했잖아요. 반복된 얘기를 자꾸만 하면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양보하시고요. 그리고 하실 말씀을 꼭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상대방의 의견

을 반박하고요. 반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을 지켜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라도 의견이 더 있으면 오늘 나온 것을 갖고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요. 그 의견을 모아서 최종안을 만들게요. 제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저렇게 막지 않았겠어요? “비상임위원도 해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밖에서 우려하는 것은 제거를 하고 가자.” 그래서 최종심의 의결을 할 때는 제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내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저건 틀렸다. 맞다.”의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모아간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고의 자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내용이죠?

성기숙 위원 :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회차 일정 먼저 정하고요. 사무처장은 2025년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예. 10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10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기숙 위원 :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전담심의제 관련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여론도 더 들어서 10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장님이 현장의 의견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정시공모(안)과 심의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사실 2023년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이 피력하신 의견이 작년과 올해 또 똑같이 재론되는데 온도차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자기 의견만 말씀하세요. 남들 얘기한 것을 자꾸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성기숙 위원 : 책임은 심의위원이 아니라 최종 의결권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것은 작년에 문예위 자문 법조인한테 물어봤더니 최종은 의결권자한테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훈경 위원님이 발언을 못 하셔서 채팅으로 하셨는데요. “국회 예결위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오늘 회의장에서 누구 말이 맞다를 다툴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 예결위처럼 확인하실 때에는 사무국과 함께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위원장이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선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개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폐 회 선 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 40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회의 종료)